

- 조직사업의 내실화
- 지회조직의 활성화
- 신규사업 조기정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 733-2189, 732-8159 / 팩스 (02) 3210-1449

회우여러분은 지금...

동정

- ◆ 권의철 / 강서구 등촌3동에서 공인중개사 개업 T. 3665-4200
 - ◆ 김기덕 / 동아방송대 전임 교수로 추대
 - ◆ 김인규 / 장애인 재활 협회 '장애인 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한다'의 팀 발대식을 8월 29일 가졌다. 팀 단장으로 9월 초 장애인 60명을 인솔하고 미국 등 5개국 순방
 - ◆ 박인채 / 재미방송인 협회 초청으로 신안 섬 어린이들로 구성된 섬드림 합창단을 이끌고 세계 기아 아동 돕기 미국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27일 귀국
 - ◆ 심상대(한민족공동체재단 이사) / 8월말 2, 3세 교포 300여명을 인솔하고 중국 연길시 방문
 - ◆ 임형두(SBS사우회 준비위원회 회장) / SBS사우회는 9월 5일 오후 6시반 63빌딩 코스모스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 ◆ 조양섭 / 딸 조미혜 박사인 하대 학교 교육대 학원 부원장에 취임
- 서회장 8월 26일 귀국
서병주 사우회 회장은 미국 캐나다 등 3개월간에 걸친 업무 일정을 마치고 8월 26일 귀국했다.

부음

- ◆ 최진근 / 부친상(7/31)
- ◆ 이광로 / 모친상(8/21)
- ◆ 박군대 / 빙모상(8/22)
- ◆ 이광주 / 빙모상(8/27)

자녀결혼

- ◆ 김기춘 / 아들 9월 2일 낮시 서울 강남Y컨벤션 웨딩홀
- ◆ 윤기로 / 딸 9월 15일 오후 6시 리베라 호텔

산수

- ◆ 윤예근 / 8월 22일

희수

- ◆ 김현성 / 8월 2일
- ◆ 조부성 / 8월 15일
- ◆ 김현식 / 8월 16일
- ◆ 유진동 / 8월 29일

고희

- ◆ 광순옥 / 8월 7일
- ◆ 인태오 / 8월 16일
- ◆ 이성수 / 8월 17일

별세 회우

■ 윤한중 회우가 7월 31일 새벽 급환으로 별세. 향년 65세. 유족은 미망인과 1남 1녀. 고인은 1968년 KBS 중앙방송국에 기자로 입사후 사장 비서실장·부산 방송 총국장·북경 총국장등을 거쳐 1998년 퇴직했다. (3면 참조)

■ 오기완 회우는 8월 3일 급성폐렴으로 별세. 향년 78세. 유족은 미망인과 1남 1녀. 고인은 월남 귀순한 후 1975년 KBS 사회교육국 대공 전문위원으로 입사 1986년 퇴직. (3면 참조)



■ 임영용 사우회 이사는 8월 8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68세.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1남 2녀. 고인은 1962년 KBS에 입사, 춘천방송 기술국장과 본사 기술본부위원 등을 역임하고 1996년 퇴직했다.



■ 김원창 회우는 8월 9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71세.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3녀. 고인은 KBS에 1969년 입사, 1989년 퇴직. 사우회에서는 오랫동안 낚시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수고하셨습니다 9월말 퇴직자

- 윤병남 / 정책기획 조직운영
- 양관우 / 심의팀
- 박기천 / 시청자 사업팀
- 박용우 / 시청자 수렴팀
- 류한금 / 편성운영팀
- 송중국 / 중계제작팀
- 김정재 / 중계제작팀
- 권봉의 / 중계제작팀
- 이석찬 / TV제작 교양기술
- 이문태 / TV제작본부(광복60년)
- 임종기 / 송신인프라팀
- 채천일 / 화성송신소
- 김점식 / 송래송신소
- 백순봉 / 김제송신소
- 이태수 / 재원관리팀
- 박종한 / 재원관리팀
- 양형주 / 재원관리팀
- 유재호 / 광고팀
- 최점복 / 부산총국 총무팀
- 조돈술 / 울산방송국
- 김병철 / 창원총국 총무팀
- 김윤곤 / 대구총국 기술팀
- 남봉희 / 대구총국 총무팀
- 김종일 / 광주총국
- 임근택 / 대전총국
- 안양근 / 대전총국 기술팀
- 이명진 / 제주총국 총무팀

희미내신분

2005년/ 오용근	원성연	이정석	임은진	장순재
2006년/ 강호정	공창진	김규종	김동일	김미라
김용대	김용배	김윤수	김재중	김종선
문국희	문영수	박덕규	박동섭	박상수
송운열	송창석	신성규	여영환	오용근
윤국노	윤병조	이동순	이석민	이수영
이철기	이태진	이항수	이현원	임은진
장영수	전광복	정관영	정창영	조창화
최 욱	최기숙	최종립	최영규	허분수
2007년/ 김기석	김재중	윤병조	이항수	

(7월 25일~8월 21일 회비접수분)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하반기 친목 행사 일정

금년 하반기 친목 활동 일정이 아래와 같이 확정됐습니다. 사우회 발전의 원동력은 참여에 있습니다. 회우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석·탐방

- ♣ 일시 : 9월 20일(수) 오전 7시 반 출발
- ♣ 행선지 : 남한강 상류(영춘)
- ♣ 출발 : ▲ 사우회 앞 오전 7시 반 ▲ 터미널 앞 오전 8시

등산대회

- ♣ 일시 : 10월 20일(금) 오전 11시
- ♣ 집결지 : 관악산 입구 (서울대입구 방향)

바둑대회

- ♣ 일시 : 11월 8일(수) 오전 11시
- ♣ 장소 : 종로2가 광교기원 TEL: 744-0445
- ※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 하차 1번출구→과고다공원 방향 50m 우측 롯데리아 4F

낚시

- ♣ 일시 : 10월 13일(금) 오전 6시 반 출발
- ♣ 행선지 : 강화 길정저수지
- ♣ 출발 : ▲ 사우회 앞 오전 6시 반 ▲ 터미널 앞 오전 7시

사진·서화

- ♣ 추후 행사 일정 발표

개별 통지는 생략합니다.

KBS사우회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KBS 사우회 ◆E-mail : kbssau@kbs.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KBS 미디어가 콘텐츠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갑니다

KBS한국방송의 수준 높은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지구촌 곳곳에 보급하는 문화수출의 선두에 KBS미디어가 있습니다.

- KBS콘텐츠 수출
- 해외콘텐츠 수입
- KBS프로그램 VIDEO DVD VCD 판매
- 음반, 출판,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편집
- 이벤트, 문화센터, 현판

KBS Media http://www.kbsmedia.co.kr 콘텐츠판매센터 781-8484



KBS미디어센터 조감도

위 치 : 상암동 DMCI구내
입주예정 : 2007.12
입주문의 : 781-8494/8495



<문화산책>



이인홍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신문 방송을 보거나 들려오는 '소음'을 들으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의 엄습을 느낄 때가 있다. 불안과 공포에 빠질 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심경이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무슨 변을 당하고 말 것만 같다. 흥해에 육로를 만들어 애급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군사로부터 구출한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 그런데도 사분오열 싸우다가 왕국의 꿈을 눈앞에 두고 40년간 광야를 헤맸다.

구원의 지도자 모세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였다. 모세의 후손인 그는 유럽 사회의 유대인 핍박에 고민하다가 '선조 모세' 탐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1913년 9월 로마를 찾아갔다. 그리고 매일 같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관찰하고 스케치하면서 思考했다. 57세 때 일이다. 프로이트는 나치를 피해 런던으로 망명한 다음 해인 1939년,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세에 관해 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박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같은 것 같았다. 프로이트는 모세가 애급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과거를 단절하거나 과거를 개조하고 위조할 수도 없다. 전통과 역사야말로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흥해를 건너는 민중의 행진'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그렸다. 중앙을 메운 민중의 행렬 왼편 아래쪽에 침착하고 의연한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대각선에 구름기둥을 그렸다. 그리고 삼각형 정상에 토라를 꺼안은 천사를 그렸다. 신화적인 구도에 암시된 그의 그림언어는 모세에 대한 신뢰와

를 레닌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렸다. 그리고 혁명과 평화의 대조적인 모티브를 여러가지 그렸다. 사람은 10월 혁명 때 공산주의에 기대를 걸었다. 세상이 뒤집히면서 꼭대기에 있던 것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전대미문의 '혁명곡예'에 자신도 마음속으로 참가했다. 얼마 뒤 사람은 자신이 '곡예'에 흘렸음을 깨닫고 는 혁명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혁명 5년 만에 고향을 버리고 소련을 떠났다. 15년 뒤 그 '배신한 혁명'을 캔버스에 담았다. 지도자 모세의 위대함을

과 그 존재가치를 강조하는 사람의 그림언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놀라운 힘이 있었다.

정치세계의 비극은 기원전 4세기에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영웅심에 노예가 된 젊은 청년 한 사람의 고소를 감당하지 못해 소크라테스를 독살했다. 청년을 타락시키고 신기한 신령을 믿게 한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그 청년의 고소에 아테네 법정에서 손을 들어 주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였다. 공직자는 추천과 선거로 임명되어 임기 1년에 중임과 재임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직자는 취임 전에 민중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취임 후에는 민중의 신임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무책임과 전횡을 처벌하는 공직자책임추궁제도(accountability system)의 감시

를 받았다. 임기가 만료된 공직자도 임기 중의 공무에 관해 두 단계 '집무심사'를 받아야 했다. 첫째는 공직자가 제출한 집무보고와 관련된 회계검사였고 둘째는 임기 중 집무에 관한 시민소송의 심판이었다. 이 2단계 '집무심사'에 합격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아테네는 무책임한자에게 정치를 맡기면 폭군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공직자를 고소할 수 있는 公訴權과 私訴權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민주정치 전복과 매국행위와 수회를 국가존립에 관계되는 중대국사범으로 처벌했다.

소크라테스는 공직자가 아니었다. 전쟁에도 출전하고 평의회에도 있었지만 옛날 일이었다. 그런데도 公訴로 기소되었다. BC399년 그가 70세 된 해였다. 재판장 아르콘 왕이 착석하고 501명의 배심원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은 유죄로 판정하고 사형을 결정했다. 아테네의 재판은 배심원의 투표가 관결하는 민중재판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 크리톤의 도피권고를 뿌리치고 백조가 죽을 때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말을 남기며 독약을 마셨다. 아테네 '참여민주주의'의 실패였다.

흥해바다에 육로를 만든 모세의 지도력, 민중을 속이는 공산주의의 곡예를 간파하는 분별력,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진실영량, 이 세 가지가 위기를 타개하는 비책인 것 같다.

(본회고문, KBS사장, 문화공보부 장관 역임)

指導者와 民主主義

군중을 이끄는 그의 지도력이었다.

사람은 백계 러시아 태생(1887) 유대인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10월 혁명(1917), 그리고 나치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독일과 일본의 패전을 겪고 전후 시대를 살다가 소련 붕괴 6년 전인 1985년 9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공산주의자 레닌과 스탈린을 체험했다. 10월 혁명 이후 제정 러시아 때부터 맡고 있던 미술관계 관직을 사퇴하고 1922년 러시아를 떠났다. 1937년 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10월 혁명을 '혁명'이란 제목의 유화로 그렸다. 가로 3m 세로 2m의 큰 그림이었으나 본체는 없어지고 스케치만 남아있다. 그림의 좌측은 무력으로 싸우는 반란과 혁명이, 우측에는 민중의 환희와 기쁨을 그렸다. 중앙에는 왼쪽 팔을 책상위에 던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있는 남자

지회소식

춘천지회 / 수해 회우 복구 도와

강릉시와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춘천지회 회우들은 8월 14~15일 이틀간 수해 피해 사우를 위한 복구 봉사 활동을 벌였다.

김종성 지회장과 장철원 총무를 비롯하여 강릉에 거주하는 13명의 회우들은 수해를 입은 강릉시 영곡면의 안희준 회우의 자택 주위를 말끔히 청소 개수하고 2000평의 밭을 고르고 풀 뽑기 작업을 벌였다.

대구지회 / 하계수련회 열어

대구지회(지회장 : 임채기)는 8월 18일 대구원터에서 1일 하계수련회를 겸한 컴퓨터 및 카페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마친후 삼복더위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나누며 정답게 뜻있는 한때를 보냈다. 한편 이명구 총국장 배려로 총국[사내소식]을 게재함에 따라 선·후배들이 카페를 통하여 소식을 나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회우들은 환영했다. 그 외 컴퓨터 운영위원 선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텃밭마련을 위한 의견 등을 교환했으며 10월 20일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울진 덕구 계곡과 온천여행 및 울진원전 산업시설 견학에 관한 계획을 마련했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 이석로 / 407-783, 인천 계양구 효성1동 현대1차 104-2005 (032-554-1019, 011-772-5831) sukrol083@kbs.co.kr (주)새한 지오텍 항공실장
- 김진홍 / 158-755, 서울 양천구 목동 북동5단지 북동5 529-403 (02-2647-2764, 016-240-2764) jhk0011@kbs.co.kr 방송콘텐츠 영상자료실 (02-781-2428)
- 문국희 / 157-865,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1번지 현대3차 301-904 (02-2685-6160, 011-9748-6160) mkh6160@hanmail.net
- 송창석 / 151-876,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44-20 (02-864-0195, 011-720-0195) cs4368@kbs.co.kr
- 이석민 / 156-030,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4 건영 102-1310 (02-827-0285, 010-3492-0258) smleesd@kbs.co.kr
- 신성규 / 200-060, 강원도 강릉시 교동 984 석마 103-1403 (033-631-4065) dsztxt@hanmail.net
- 이동순 / 156-761,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 109-1005 (02-817-9968, 011-9981-3108) leeds@kbs.co.kr
- 이현원 / 137-779,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5 삼풍 7-610 (02-592-0372, 016-746-0372)
- 임하중 / 136-825,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77-20 (02-763-3879, 019-387-3879)

주소변경 회우

- 김영태 /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역기 109-703 (02-572-5644, 016-9338-5644) 투데이 프로덕션 대표(02-761-8111) ytkm@kbs.co.kr
- 박정하 / 471-060, 경기 구리시 토평동 97-3 402호 (031-557-6367) jhpak@kbs.co.kr
- 송보물 /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7 동아빌라 102호 (02-522-5366, 011-9997-2984) 서울원음방송 기술국장 (02-2102-7770) bysong@kbs.co.kr
- 신영춘 / 425-881, 경기 안양시 단원구 초지동 736 그린빌 1514-701 (031-413-1477, 011-9024-9816) ycsstin44@hanmail.net CN엔터테인먼트 연구원회장 (031-413-1477)
- 이흥기 / 306-757, 대전 유성구 원내동 집탑타운 202-1402 (042-542-5045, 016-9490-5045) jsukkuyn@yahoo.co.kr
- 한진식 / 305-509, 대전 유성구 관평동 609 산동아 509-2302 (042-671-7276, 011-449-7275) hjspost@hanmail.net
- 최판원 / 신대방삼거리 기원 (02-813-9231)
- 황철이 / 011-9248-9377
- 김봉식 / 706-140,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27-8 포도원농장 (053-793-1679)
- 이일형 / 156-765,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주공 2단지 201-402 (02-812-6059, 011-756-6059)
- 송영수 / 150-780,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 202-203 (016-214-6168)
- 박광석 / 411-81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884(3층) (031-901-2050, 011-9019-2050) (주)세하통신 이사 (02-416-3007) ds2mtj@kbs.co.kr
- 정종진 / 121-856, 서울 마포구 신수동 453 대원칸타빌 103-404 (02-713-3313, 011-387-3313) 한국방송개발원 (580-3831)
- 홍성익 / 446-939,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성원 103-701 (031-309-0310, 010-9415-5242) hongpd@kbs.co.kr
- 우국재 / 245-130, 강원 삼척시 정삼동 현진에버빌 107-1001 (033-574-6292~3, 011-257-4502)
- 권광수 / 745-823,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352번지 (054-554-6045)
- 이흥주 / 157-016,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우장산 롯데캐슬 201-402 (02-2680-5492) 스카이라이프 방송본부장 (02-2003-3020) lhjst@kbs.co.kr
- 인태오 / 449-846,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동 건영 101-703 (031-272-7275)
- 변정호 / 130-092,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65 동일하이빌 103-1402
- 공창진 / 621-893,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141-2
- 김동일 / 445-982,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영동 현대 110-1701 (010-8372-4569)



社番 4番의 그때 그 이야기

글 : 이정석 회우

이혜복 선배를 뉴스앵커로

KBS방송공사 발족을 전후해 내 나름대로 외부 인재 영입에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보도의 취재인력강화와 이미지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언론계의 좋은 선배님이 KBS에 오시기로 승낙하신 것이다.

이혜복 선배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선배는 해방직후에 언론계에 투신, 경향·서울신문 법조기자, 6.25 종군기자, 민국일보·동아일보 사회부장을 역임한 베테랑 언론인. 이혜복 선배는 KBS로 옮긴 뒤 얼마 후 9시 뉴스 앵커를 맡도록 했다. 간판 뉴스시간의 새 얼굴이다. 언론계가 KBS 뉴스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재야 반정부 운동에 앞장섰던 천관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마저 "KBS뉴스에 이혜복씨가 등장하니 참 보기 좋다. 이혜복씨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격려했다는 소리도 들었다.

취재능력 향상-스카우트

KBS의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자천 타천으로 내 서랍에는 수많은 이력서가 들어왔다.

이혜복선배의 KBS영입을 앞뒤로 해

서 서울신문 경제부장을 지낸 김경식 씨를 보도국 부국장으로 영입해 KBS 출신인 김도진 부국장과 더불어 뉴스 취재의 수문장 기능을 강화했다.

신문·방송을 막론하고 뉴스경쟁은 사회부가 성패의 관건이다.

조선·서울·경향신문의 사회부 민원기자와 사회부 명 데스크로 날



경력자 대거영입으로 취재력 강화

리고 있던 김은구씨와 동아방송의 시경갑 한중광씨, 대한일보 사진기자 김부억씨도 가세해 어느 신문·방송 못지않게 사회부의 취재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그 무렵(박 정권 하)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대한일보·동화통신이 문을 닫게 되어 정치부·사회부의 쟁쟁한 인력이 KBS로 유입되어 KBS보도국의 화력(火力)은 더없이 강화되었다.

이 스카우트 바람속에서 정신을 차리니 이번에는 원 KBS공채자가 중심이 된 저항운동 비슷한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벌써 35년 전의 일이다.

그때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도, KBS재래파도 모두 요직을 거쳐 정

년퇴임을 하였다. 요즘 KBS사우회에 서로 웃는 낯으로 만나니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새삼 되뇌어 진다. 1973년 3월 방송공사 발족전야의 스카우트(외부인사 영입)와 내부의 반발은 인사태풍을 연출한 것이 사실이다. 인사 청탁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비장한 각오로 보도국

만 했다.

파워게임에 긴 KBS

그 어느날 청와대, 내각(국무총리)의 파워게임(?)에 KBS가 중간에 끼어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 그 내용인즉 이러했다.

저녁 9시 뉴스시간을 앞두고 편집부장이 "어찌하오리요"라고 보도국장인 나의 의견을 묻는다.

뉴스 아이템은 그때만해도 청와대 동정이 첫 머리고 이어 총리실과 각부처 뉴스, 사건, 사고, 지방뉴스로 정형이 되어있었다. 그날 편집부장의 고민은 그 전날 사라예보 여자탁구 결승전에서 이에리사 선수가 우승하자 육영수 여사가 축전을 보냈고 또 국무총리도 축전을 보냈는데 누구를 먼저 내보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편집부장 의견은 어떨시오" 나는 그의 판단을 물었다. "육영사 축전을 총리축전 나간뒤에 내자니 빛하니 총리앞에 내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축전을 받는쪽도 여성이고 또 여자탁구경기니까요!"

나도 그의 판단대로 실시 하도록 지시했다. 방송 나간후 김총리축에서 항의전화가 왔다. 윤주영 문공장관이 한동안 총리실 측근으로부터 야유를 받아 곤혹스러워 했다는 후일담이 생각난다.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인사청탁 엄단을 공언

나는 승부수를 걸단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외부인사영입이 KBS보도국의 전력강화를 원하는 마음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를 믿어주기 바라며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순간 이후에 인사 청탁을 하는 자는 흑판에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험박 아닌 내 결심을 내뱉었다. 그후 인사 청탁은 딱 끊겼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국무총리실에서 총리의 부탁이라면서 청탁이 있었다. 나는 차마 그의 이름을 흑판에 적지는 못했다. 그는 그 후 이리저리 변두리에서 놀아야

홀연 떠나야 할 사연 있었나요

- 吳基完 선배 靈前에 -

추도사를 써줬으면 한다는 전화에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저녁도 몇 술 뜨다 목이 메어 말아버렸습니다.

이렇듯 허망할 데가 어디에 또 있던 말입니까?

오기완 전문위원님, 아니 오기완 선배님.

어이하여 한마디 알립도 없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을 성급히 재촉 하셔야만 했던 말입니까? 후배들에게 번거로움까지 안겨주지 않기 위해 소리 소문 없이 가셨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 아리게 합니다.

공수래공수거인 것이 인생 그 자체라지만, 신문의 부고 한 줄 남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무정히도 떠나셔야만 했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렇듯 길을 서둘러야만 하셨나요? 이 허전한 마음과 마음들을 어드메 묻고 달래라고 말입니까? 요즘처럼 장수하는 좋은 세월에 80고개도 넘기지 못하시고 홀연히 떠나셔야 할 다급한 일이라도 계셨나요?

선배님은 자유를 찾아 월남하신, 말 그대로 자유의 수호신이셨습니다. 군에서, KBS에서, 정보계통에서 큰 획을 그으신 우뚝 선 인물이었습니다. 사회교육방송을 통해 이룩한 선배님의 원대한 뜻으로 해서, 오늘날 이만큼이나 남북의 화해무드가 이루어진 씨알이 됐다고 믿습니다.

선배님은 체격 좋으신 호남형에, 쾌활하신 성격, 그리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대인관계, 거기다 기발한 집필력과 위트까지 갖추셨기에 후배들의 본보기요, 귀감이기도 충분하셨습니다. 사내(社內)원고예다, 넘쳐나는 외부원고, 강연과 방송 출연 등, 그 많은 스케줄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도 여유로우셨던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런 걸, 모르는 이 누가 있던 말입니까?

몇 년 동안 저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정시(定時)전에 원고를 주실 정도로 숙필이셨고 수정할 곳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원고로 정평이 나셨던 선배님, 그 번뜩이는 필봉을 어디에 묻고 떠나셨나요?

두주불사에, 야유회에라도 나가 흥에 겨울 때 추시던 선배님 특유의 곱사춤은 인기를 독차지하셨고 장내를 웃음바다로 몰아넣을 만큼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셨죠.

그 위풍당당하셨던 모습을 이승에선 다시 볼 수 없게 된 선배님,

아--! 이 설움, 어떻게 주체하라고 마지막 가시는 모습마저 배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훌훌단신 매정히 가버리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시고 어이 눈을 감으셨나요?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하늘나라에서 부디 영면하시옵소서--.

글: 어호선 회우

청천벽력, 건강의 화신이었던 그대가

- 尹漢重 형을 기리며 -

지난 68년 가을 서울 남산의 오색단풍이 추풍을 타고 때굴때굴 소월로 포도에 뿜굴던 날!

서울중앙방송국 기자로 같은날 입사하여 천방지축, 동분서주하며 성내고 웃으면서 살아온지 어언 38개 성상!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여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같이 살아갈 줄 알면서 희식의 부딪히는 술 잔속에 국제정세를 일갈했고 때로는 열띤 토론속에 국가와 인생을 논했으며 야유회의 강과 산에서 청춘과 낭만을 불태웠다.

尹형의 우람한 체격과 용솟음치는 활력은 항상 사내의 체육대회 때마다 보도분부를 대표해서 관우 장비 같은 용맹을 펼쳤고, 각 언론사 대항 축구경기에서는 준마처럼 달리며 KBS에 우승의 영광을 안겨준 1등 공신이 아니었더냐!

그렇게도 건강하고 용감했으며 책임성과 의리의 화신으로 칭송받던 형이 어느날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다는 부음은 우리에게 청천벽력이지요, 가슴을 후비는 아픔의 극한이었네.

會者定離요, 生者必滅이 세상의 이치요 법칙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 형을 필요로 하고 할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속절없이 우리곁을 떠나니 운명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너무도 애통하고 허전할 뿐이네! 하늘은 착하고 유용한 인재들 먼저 부르신단거냐!

삼복염천에 한조각 구름을 보니 형의 영혼을 보는것 같아 짧은 시

절 경찰서 출입기자를 하던 70년대 초반이 동영상되어 뇌리를 스치네, 새벽잠을 설치며 경찰서 형사과와 당직실을 헐떡이며 홀고 다니던 정열과 용기의 사회부시절. 그러다 형은 국회로 중앙청으로 취재의 민원을 뽐냈으며,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특파원으로 활약했고, 세상을 뜨기 얼마 전까지만해도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나라 각 정당대표 초청 정책토론회를 마련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현주소와 비전을 국민(시청자)에게 보여주는 정열을 쏟음으로서 방송 언론기자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남다른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放送기자였네!

嗚呼痛哉! 그러던 사람이 마지막 갈 시간이 얼마남지도 않은출도 모르고 언론계 대선배님의 일주기에 참석 분향한 그 정성과 인정과 도리는 남은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영원한 추억으로 새겨질 것이네. 天衣는 無縫이요 天上은 無邊이며 天食(酒)은 無料라하니 기왕 훨훨털고 하늘가는 도중에 주막이라도 있거들랑 부딪음이 들려서 이승에 남아 있는 사람과 잡다했던 번민은 다 잊어버리고 호탕했던 인간세계에서의 형의 기개를 보여주게나.

글: 68 동기생 이휘 회우



요즘 어떠세요?

李丁鶴 회우와 차 한잔 나누며

우리 일행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 충남 계룡산 기슭을 찾았다. 이정복 회우가 남은 정열을 쏟고 있는 수목원을 찾아 보기위해서였다. 공주 고속화도로를 벗어나 갑사로 통하는 길을 잠시 달리다 보면 <이안수목원>이라고 쓴 돌기둥이 금세 눈에 들어 온다. 수목원에 들어서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늑한 느낌이 든다. "수목원은 3만평에 달합니다만 여기엔 야생화관, 조경관, 회귀 목석관, 열대 식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회우 말대로 여러 전시관이 세워진 상태로 그 안에 전시물들이 일부 채워지고 있다.

국내최고 수목원 만들터

공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다 멈춰 서 있고, 회귀 나무와 돌 등이 여기저기 나뒹그러져 있다. 수목원의 관장직을 맡고 있는 이정복 회우는 야생화·목석·열대식물의 실내 배치는 물론이고 야외의 관상수와 돌의 위치 선정 등 모든 레이아웃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공주방송국장을 지낸 이정복 회우는 대전방송국 근무를 끝으로 2003년 9월 KBS에서 퇴직했다. "재직시엔 토요일과 일요일엔 쉬었지만 퇴직후엔 휴식할 주말도 없어졌어요". 이 회우는 그가 좋아 하는 야생화 작

품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가. 그는 퇴직후 3년동안 집에서 점심을 먹어 본게 열흘도 채 안될거라고 말한다. 이 회우가 꽃에 관심을 둔 것은 20년 전부터라고 한다. 꽃이 좋다 보니 야생화에 몰두하게 됐고 그래서 오래 전에 <소산 야생화 작품연구소>를 만들었다. 이것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안

인 2001년 부터는 대전방송총국에서 봄꽃 축제를 여는 주역을 맡아 왔다.

<소산 야생화 작품 연구소> 열고

그후 봄꽃 축제는 연례행사처럼 돼 왔다. "매년 열다 보니가 관람객의 성향과 선호도를 알 수 있었어요. 관람객 중에 30대 부부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용기를 뚫어 할미꽃을 심은

3만평 수목원 조성에 정열을 쏟다



면도 세계꽃박람회때였다. 이 회우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사실 제가 당시 공주방송국장에 재직하면서 충남지사에게 세계 꽃 박람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꽃의 나라 네덜란드가 처음엔 박람회에 대해 시큰둥하다가 적극 참여하는 등 세계 30 여개국이 참석하는 상황을 이루었다. 이 박람회에 이 회우는 1,600점의 야생화 작품을 출품해 호평을 받아 나중엔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화훼 부문의 포상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 회우는 박람회가 열리기 1년 전

야생화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게 대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수목원으로 가기전에 연구소에 먼저 들렀다. 연구소라는 느낌보다 작품을 정리 보관해 가꾸는 비닐하우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니 야생화 또는 야생풀과 기묘모양한 돌이 어우러진 작품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매발톱, 금낭화, 할미꽃 등이 보이고 백두산 돌에 조그만 향나무가 집합된 것, 아프리카 수국, 인도네시아 괴목에 야생풀이 자리있는 것 등등. 괴목이나 나무 돌은 중국 러시아 알

라스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 것들이다. 비닐 하우스 4동에 2,000개의 작품이 가득한데 이중 3분의1이 국내산이지만 작품의 주류는 국산이란다. 이 회우는 작품을 보여주면서 어느 야생화도 잎과 뿌리만 보면 어떻게 심는지를 알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낸다.

수목원 제1관인 야생화전시관에는 이달 말에 연구소의 작품들이 옮겨지게 된다. 아직은 텅 비어 있지만 제주도 형태의 풀밭에 야생화와 다른 식물을 심은 분경(盆景)이 눈길을 끈다. 제3관인 목석관엔 아주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다. 진달래 뿌리를 원형으로 잘라 세워 놓았는데 그 뿌리는 2,500년 된 것이고 지름은 2미터가 넘는다. 그 정곡에 수직으로 나무로 깎은 공작새가 붙어 있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관에는 또 나무화석이 원통형으로 여러 개가 배치돼 있다. 석순 작품들도 많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동굴도 만들어 놓았다. "수목원이 국내 최고가 되도록 할겁니다. 수목원이 문을 열면 KBS사우회 회원과 직원들에게 특별할인혜택을 줄겁니다"라는 이 회우이다.

그는 재직시 충남의 4,300개 새마을 가운데 3,000군데 마을을 취재했을 정도로 새마을 운동을 원없이 취재했다고 회상했다.

사우회 대전지회장이기도한 이 회우는 "사우회에선 나이나 직위는 없다. 다만 선후배 관계만 있다"는 새로운 규율을 세워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몇 년 전에 10여명이 모이던 모임이 지금은 40명이나 된다고 했다.

글: 김선기 / 사진: 이종문

방송비평

8·15 기획 '야스쿠니와 세여자'

안평선 회우 / (사)한국방송인회 상임 부회장

광복절 특집중에서 특별히 시선을 모은것은 '특집:하얼빈 도전! 골든벨'(PD:백항규, 연출:이용준)과 '6시 내고향 백년가약'(PD:함형진, 연출:이은수, 정연태)광복절 기획이었다. 김선남(2년)학생이 활달 명랑하고 다양한 표정으로 유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50번 문제를 통과해서 골든벨을 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6시 내고향'은 지금까지 러시아 고려인 동포 취재 영상을 많이 보았지만 모처럼 밝고 환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

▲KBS스페셜-8·15기획 해방되지 못한 영혼, 조선인 BC급전범 방송: KBS 1TV 8. 12(토) PD: 김무관 글/연출: 이호경

태평양전쟁 전범재판에서, 전쟁수행 과정에 가혹하고 부당한 행위 가담자가 B·C급으로 분류되는데, 일본에 거주중인 한국인 당사자들과 그 후손들이 '동진회'를 결성하여 명예회복을 위해 끈질긴 투쟁을 벌이는 다큐멘터리. 마침내 한국 진상규명 위원회로부터 '인정서'를 받고 60년만에 감격적으로 명예를 회

복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투쟁을 다짐했다. '시모무라(下村)문서'가 일본 제국주의 군부의 본색을 들어냈고, '세기의 유서'(1953)의 한국 청년들의 유언이 가슴을 찡하게 했다.

결정적인 공헌은 일본인 우츠미아이고 교수가 정규문 재판기록을 찾아 낸것. '포로들에게' 불랑음식제공, 비타민 등 영양 불균형 부족, 의약품 부족, 강제노동' 등등 죄목이 조선인 포로 감시원이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우츠미 교수의 양심적인 학자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했다.

▲8·15기획 야스쿠니와의 전쟁 제1편 '야스쿠니와 세여자' 제2편 '국제 공동 투쟁의 기록' 방송: KBS 1TV 8. 13. 20(월) PD: 김무관 글/연출: 이호경 촬영감독: 위창석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인 영령 21,812위, 타이완 28,000여위가 합사되어있다. 한국여인 이희지(보상추진협회)와 타이완 원주민 출신 입법위원 가오진쑤메이, 그리고 일본여인 도조 유우고(東條의 손녀) 세 여인의 합사에 대한 치열한 대결의 기록.

제 1편은 균형적인 구성이었고 제 2편은 가오진 쑤메이의 투쟁활동이 독점적으로 부각되어서 국제공동투쟁이란 명분이 약했다.

이희자씨는 거의 개인 차원의 느낌을 준데 비해 가오진 쑤메이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대항으로 마치 독립투쟁을 하는 결사대 같은 감동을 주

었다. 가오진 쑤메이가 야스쿠니를 향해 돌진하면서 '환위쭈링'(還我祖靈)을 웨치는 장면은 전율마저 느끼게 했는데, 그녀는 원주민을 대표하는 가수 출신의 정치인이고 이희자씨는 평범한 도시민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도조 유우고가 국제 심포지움에서 합사의 당위와 영광을 주장하는 모양은 가증스러웠고 역시 그 할아버지에 그 손녀라 어쩔수 없음을 확인시켰다. 이 여자의 생각이 보편적인 일본인의 정신일 것이 아니겠는가.

▲8·15 특집 국악한마당 방송: 8. 12(토) / ANN: 고민정 PD: 박태호 / 연출: 최공섭

영국 여류화가 엘리자베스 키스(1897~1956)가 3·1운동 직후인 1919. 3. 28 입국하여 부산, 서울, 평양, 함흥까지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36점의 그림을 그려 1946년 발간한 'Old Korea'에 수록된 작품들을 소개. 소재가 다양하고 사실적이어서 시대를 조명하고 풍속사를 돌아보는 가치 있는 작품들이었다. 국악 선곡도 회화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림의 감상과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해설이 흠족하지 못했다. 단독 특집 프로그램으로 기획 됐더라면 하는 미련을 남겼다.

▲가요무대 방송: 7. 31(월) 8.7, 8.14 '해변, 항구의 낭만', '합천공연', '1945년 8월 15일' PD: 김승우 ANN: 전인석 자문: 김점도, 원형걸, 김진성

연출: 박성명, 김승우

선곡의 폭이 넓어져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도 있었고 경력이 오래지 않은 젊은 남녀 가수들이 고전적인 옛가요를 무리없이 소화해내는것이 안정감을 주었다. 열심히 연습을 한 보람일 것이다. 반면에 빅스타급의 고참 가수들은 가요무대 단골팬의 기분을 망쳐 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창력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곡 해석이나 제대로 하고 가사를 멋대로 개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도로스 편' - 1950년대 이후의 곡들로 구성되었는데 마도로스는 항공편이 거의 불가능했던 1930~40년대가 전성 시대였기에 그 당시 유행했던 '마도로스 수첩', '화물선 사랑' 정도가 끼었더라면...

'1945. 8. 15' - 1920년대 '사의찬미'부터 45년 '귀국선' 까지, 제 1쿼터의 '감격'보다 암울했던시대의 체념과 '비탄'이 강조된 구성으로 보였음. 1000회가 다가오는데 특집이 기대된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획기적인 큰 기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보·홈페이지 원고 모집

매월 발간하는 사우회보와 항상 떠 있는 홈페이지에 실릴 회우 여러분의 옥고를 환영합니다.

- 수량: 회보 - 200자 원고지 5매 이내 / 홈페이지-무제한
- 마감: 회보 - 매달 15일까지 / 홈페이지 - 수시